

무궁화3호 입찰설명회 한국통신, 발사체부문

한국통신은 지난 10월 서울본부에서 미 맥도넬더글라스 등 외국발사업체와 국내 관련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9년 발사될 무궁화 3호위성의 발사체 구매규격보완을 위한 사전 입찰회의를 가졌다.

이날 사전 입찰회의에는 맥도넬 더글라스사를 비롯하여 록히드 마틴의 계열사인 ILS(International Launch Service), 중국 장성공사, 유럽 아리안스페이스 등 4개의 외국업체와 현대우주항공, 한라중공업, 기아중공업, 한화, 두원중공업 등 국내 관련업체 및 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통신은 위성체 입찰과 함께, 발사체 입찰도 한국업체들을 제작과정에 일정부분 참여시키도록 할 방침이며 오는 11월말 발사체 입찰공고를 내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내년 1월부터 규격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 최종업체를 선정해 내년 5-6월경 설계 및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MMS, 20억달러 계약에 눈독

프랑스와 영국은 잠재적 공급

자들로부터 유럽에서 사용될 20억달러 상당의 군사위성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들였다.

독일이 참여하게 될 수도 있는 'Trimilsat'이라 불리는 4개 위성 시스템은 다음 세기 초에 발사될 예정으로 영국의 Skynet 위성과 프랑스의 Telecom2 위성을 보완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대체하게 될 것이다.

유럽의 아에로스빠시알과 Marta Marconi Space(MMS)이 각각 이끌고 있는 두 개의 경쟁팀들은 올해 말에 기초 조사 계약을 얻게 되고 '99년에 계약을 맺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MMS사는 Skynet과 Telecom 위성을 제작한 바 있다.

만약 위의 앵글로-프랑스 합작사업이 등 계약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94년 MMS사가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의 스페이스 시스템을 맡게된 것을 정당화시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Marta사와 GEC-Marconi사의 우주산업분야를 합병하여 이루어진 MMS사는 '94년 11억 달러에서 올해 16억 달러의 총매상고를 기대하고 있다. 동사는 '95년 10월 이후 10억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9개의 통신위성 제작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中, 신형로켓 개발중

중국 과학자들은 공중폭발 등으로 중국 우주산업개발 추진에 시련을 안겨줬던 장정 로켓의 새 모델들을 개발중이라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발표했다.

장정로켓의 후속모델 중에는 무게 1백50kg에서 1천kg에 이르는 인공위성을 실어나를 수 있는 장정 1-D'와 여러 인공위성을 정확히 지구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장정 2-C'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내년 중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국로켓 기술연구소의 리장송 소장이 말했다.

위성 발사기지 공개 러정부, 프레섹크에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우주시설인 러시아의 프레섹크 기지가 공개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아르한게리스크시 근교에 위치한 이 프레섹크 발사장은 1957년에 구 소련 최초의 대륙간탄도탄(ICBM)발사 시험기지로 개설되었으며 1964년에는 연구 실험 전용 시설로 변경되었다. 이 조치에 따라 우주로켓 발사 시험은 조건이 좋은 카자프스탄에 있는 바이코누르기지에서 실시되었다.

1994년 11월 동 기지는 러시아의 최중요 우주기지로 지정되어 근대적 발사시설을 정비하고 현재는 러시아가 발사하는 대부분의 인공위성을 여기서 발사된다고 한다.

**위성 잔해와 충돌
프랑스의 연구용 위성**

프랑스의 세리즈 전자·정보·기술 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위성의 잔해와 충돌하여 안정을 잃었다고 프랑스 우주소식통이 밝혔다.

세리즈 위성은 1995년 7월 7일에 발사 되었는데 길이 5m의 자세제어 장치에 아리안 1형 제3단으로 보이는 파편이 추정속도 27,000노트로 충돌했다는 것이다. 세리즈 위성을 제작한 SST사

는 불안정 하지만 곧 자세가 안정 될것이라고 말하고 지상에서 제어 할 수 있다고 언명하고 관제소를 통해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충돌은 우주공간을 표류하는 위성의 잔해와 위성이 충돌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한다.

**여성 우주 채재 기록경신
아트란티스지연으로**

미항공우주국(NASA)는 러시아의 우주정거장 미일과 도킹하기 위한 아트란티스 우주 왕복선을 발사했다. 그리하여 예정대로 도킹했고 동 우주정거장에 타고 있던 미국인 여성 우주비행사 루시트드는 아트란티스에 옮겨 타고 케네디 우주센터에 귀환했다.

그런데 당초 아트란티스호는

40여일 전에 발될 예정이었으나 로켓트 부스터에 고장이 발견되어 이를 갈아 끼우는데 시간이 걸려 예정보다 늦게 발사 되었다.

그때문에 루시트드 비행사는 188일 4시간을 우주에 체재하여 기록을 경신했다.

**스페이스 셔틀 민영화
NASA, 계약 일원화**

NASA는 United Space Allians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복수기업에 발주해 오던 우주왕복선의 관리 운용업무 6년분을 약 70억달러로 일괄 발주했다고 미 우주소식통이 밝혔다. NASA는 경비와 인원절감을 위해 운용 민영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의 실행태에 앞서 관리 운용계약을 일원화하여 결과를 살필 방침이다.

기다립니다

월간 항공우주는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전달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의견, 협회 및 기업체 등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의견이 있으시면 편집자에게(전화: 761-1104 윤병한) 보내주시시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정기구독안내

본 항공우주지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기반 확충과 대중적 이해의 확산을 위해 정기구독을 원하는 분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편료 정도의 부담으로 1년이상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항공우주협회 기획과로 신청해 주십시오. 1년간 구독료는 12,000원입니다. 담당: 남 주현
■전화: 761-1101
■FAX: 761-1175